

〈특강 2〉

말씀 선포의 능력 -5분 샤우팅(shouting)

강사: 박봉열 목사

1. 코로나19가 가져다준 하나님나라의 심각한 위기

1) 코로나가 한국교회 전진을 가로 막았습니다.

교회는 특성상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특징 때문에 전염병 전파의 취약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에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교회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처럼 오도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메스컴과 언론에서 지나치게 과장함으로 어린아이나 청소년, 어르신들은 부모와 자녀들이 심지어 직장에서 까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2) 더 무서운 것은 다음 세대들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1년 넘게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19가 교회와 학교 학원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이고 무서운 것은 코로나보다 3배나 더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들조차도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이제는 아예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었고 다음세대들은 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에 대한 복음의 소망이 꺼져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 세상문화에 밀린 성경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없이는 공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편하고 빠르고 온 지구촌을 이곳에서 공유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구촌 온 세상이 이곳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온 세상과 기업, 직장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세속적인 문화들을 이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폰이 참으로 좋은 것이 많은데 그동안 소중히 여겨왔던 전통적인 가치들이나 생활패턴들이 이로 인해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카톡이

나,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수단들이 온통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아 버렸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이 통일된 듯합니다.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다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누가 글씨만 가득한 딱딱한 성경을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은 성경을 읽는 이도 없거니와 아이들에게 읽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고민해도 막막합니다. 이제는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누며 목장모임을 가지면서 어울리며 하던 것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 부흥회를 하고 대형 집회를 통해 은혜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션계통의 선생님들은 학교로 찾아오는 이들을 어떻게 신앙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교회 잘 나가란 말밖에 권면할 말이 없습니다.

민족의 소망이며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승리의 용사를 만들 것 인가가 심각한 기도제목인 것입니다.

공부 하나만을 강조하고 끌고 가기도 벅찬 이때에 과연 제 발로 찾아온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친구와 시대들에게 발휘하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5분 샤우팅(Shouting)

1517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는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만이 교회에 기초가 되게 하고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속에 말씀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여년이 지난 지금 잘 달려온 세계교회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을 말씀에서 떠나게 했고 관심사를 바꾸었고, 성경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에 무관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고자 이 시대에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5분 샤우팅입니다. 5분 샤우팅은 교회와 성도들, 아이들을 온통 말씀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혹은 2~3세 시간씩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놀라운 기적들이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데 일어납니다.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합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담대하게 합니다. 5분 샤우팅은 사람들이 단톡방이란 가상공간에서 비대면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인데 아주 쉽고 재미가 있으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너무 좋고 위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려우니 교회가 가기 싫고 부모님이 가라니 억지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5분 샤우팅은 이런 딱딱하고 때로 지루해만 보이는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그러면서 함께 밀고 당기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5분 샤우팅의 배경이 된 두 말씀

***잠언 4:8~9 *민수기 14:28**

성경이 아무리 좋아도 읽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경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17년 동안 매일 한절씩 6000절을 암송하면서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암송하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저희 기도제목이었습니다.

2)카톡기능중 5분 음성메시지의 발견

17년 동안 말씀을 높이려고 애 쓰는 것을 보고 카톡중 5분 음성메시지를 통해 단톡방기능에서 함께 하게 하는 것을 집사님을 통해 발견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3)폭발적인 선포의 바람이 일어남

4)텐텐(Ten & Ten) 운동을 명하심

5)실제적인 적용방법